

33. 교육을 바로 잡은 대사성(52세)

나라에 선비의 기풍이 무너진지 이미 오래니 걱정이야. 훌륭한 학자를 택하여 사표로 삼고 싶는데 누가 적합한가?



영의정이 나섰다.

경술과 문장에는 이황을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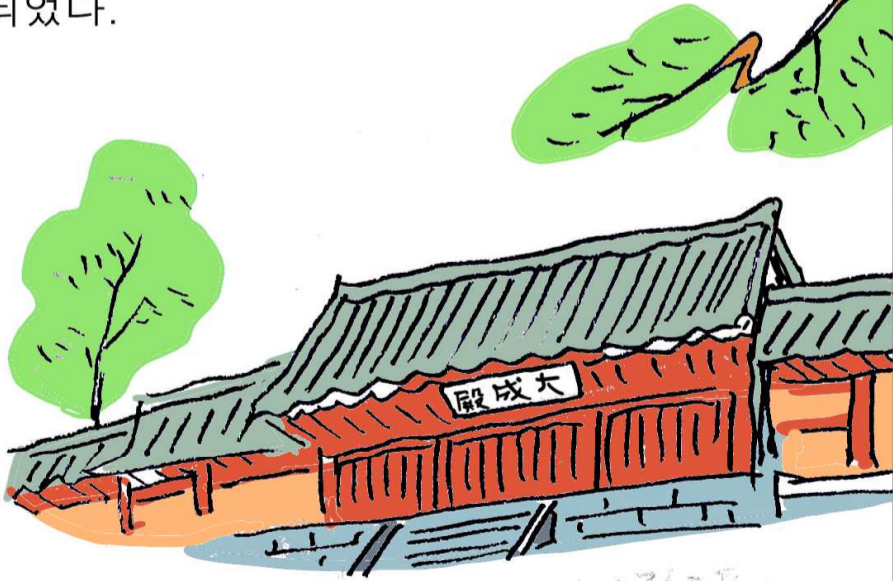


대제학이 거들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가난하여 서울에서 살기가 힘들니 호조에 명하여 충분한 급료를 내리십시오.



7월에 다시 서울로 불러와 대사성으로 승진되었다.



조정 of 대관들이 모두 흡족해 했다.

참으로 사표에 마땅한 인물로 어진 임금의 행복인줄 아뢰오.





초여름에 명종 임금의 불렀다.

학교 교육이
심히 황폐해지고
기강이 해이해졌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성균관 대사성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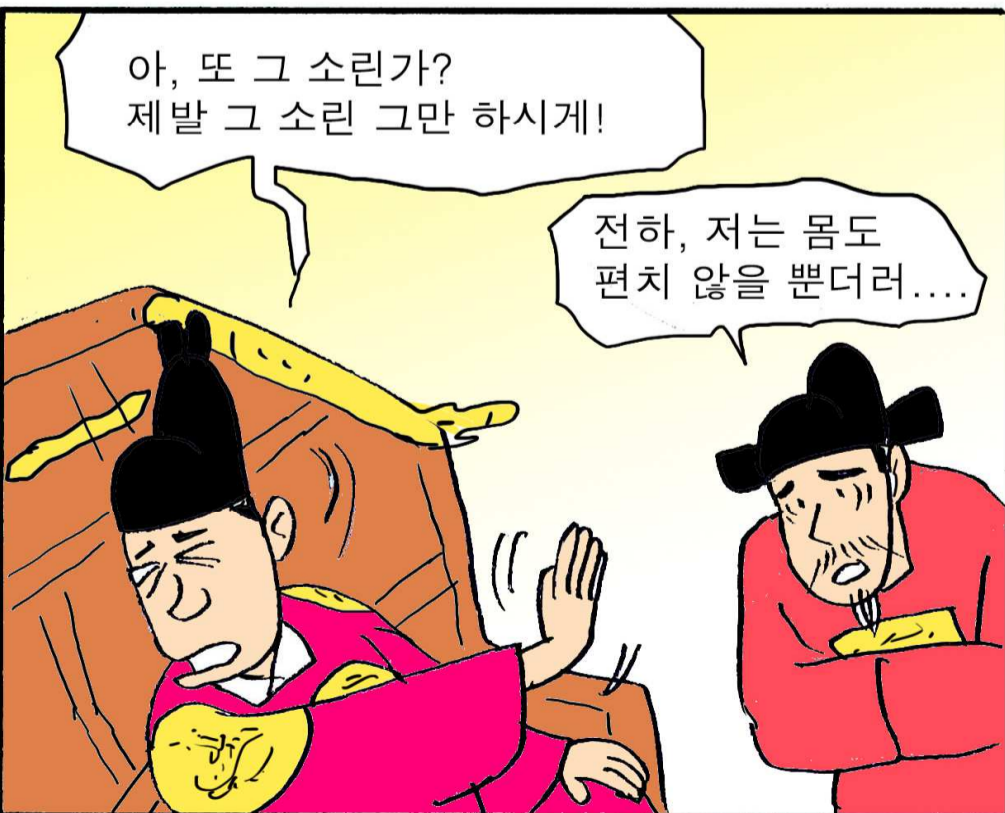


소인은 자질이 없는 자로써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망칠까 우려되는 바, 자리를
사양함이 마땅하오니
윤허해 주시옵소서.



아, 또 그 소린가?
제발 그 소린 그만 하시게!

전하, 저는 몸도
편치 않을 뿐더러....



휘유~ 이젠 말도
안들으려 하시네...



당시에는 한양에 소학을 가르치는 학당이 네 곳에 있었다.



정원은 각각 1백 명으로 기숙사가 있고 경비는 국가 부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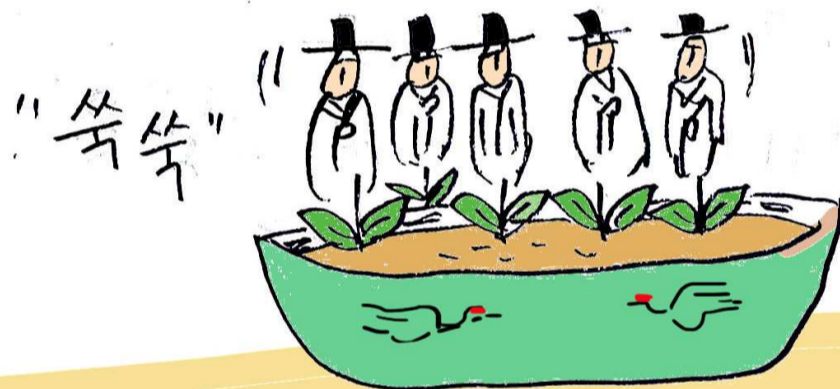
일단 각 학교에 보낼 공문을 작성하자.



퇴계가 공문을 작성하는데

요즘 학생들의 예절이 어지러워져서 장차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심히 걱정이다.

학교는 사회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뿌리가 되는 곳으로



예절과 정의의 모범이며 장래의 선비를 기르는 곳으로 중요하다.

이제부터 학생들은 일상생활이나 먹고 마심에 예절을 지키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도록 힘쓰고 어버이 섬기듯 어른과 윗사람을 섬겨라.



안으로는 충성스럽고 믿음이 있는 마음을 기르고 밖으로는 온순하고 공손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나라의 높은 뜻에 보답해 주기 바란다.